

기후변화 주제 ‘친환경 건축’ 추진한다

5차 광주폴리 사업 기본계획 발표

시민들과 재활용 건축 작품 선포

둘레길 조성 문화예술관광 활성화

제5차 광주폴리는 동시대의 핵심 주제인 기후변화를 주제로 친환경 건축으로 추진한다.

광주폴리에 도입되는 건축 재료와 시스템을 환경친화적으로 만드는 데 있어 지역과 다층적인 협업을 통해 순환경제를 실현적으로 실현할 계획이다.

27일 (재)광주비엔날레 3층 회의실에서 배형민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제5차 광주폴리 감독이 광주폴리 5차의 추진 방향과 사업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제5차 광주폴리는 세계 기후 위기에 대한 실천을 주제의 방향으로 설정했다. 시민들이 함께 하는 순환경제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통한 ‘재활

용 건축’을 개발한 작품 등을 선보인다는 방침이다. 이에 환경친화적인 건축 재료와 시스템 개발을 위해 선제적으로 연구개발에 착수한다. 순환경제 실현 목적 아래 광주 지역 산업체 및 시민단체와 적극적으로 연계해 현대 및 전통 재료의 활용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과의 적극적인 협업으로 지속가능한 건축 방법론을 개발하고 이를 폴리로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조립·해체·이동이 가능한 건축시스템을 개발해 ‘재활용 폴리’를 제안하고 있다.

특히 제5차 광주폴리는 지난 10여 년 동안 광주 도심 곳곳에 설치된 31개의 기존 폴리 작품들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의 연계를 통한 ‘광주폴리 둘레길 조성사업’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미 조성된 폴리와 적극적으로 연계하면서 광주의 문화예술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는 전략이다.

(재)광주비엔날레는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광주폴리 둘레길 조성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연



배형민 총감독이 제5차 광주폴리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광주비엔날레 제공

구용역’을 통해 사업 추진의 방향을 수립했다. 물리적인 둘레길 조성뿐 아니라 광주폴리의 아카이브와 광주폴리를 중심으로 한 친환경 시민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웹 기반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구체적인 실행안을 준비하고

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목적으로 진행되는 둘레길 조성사업 또한 배형민 감독이 이끌어갈 계획이다. 문화전당권에 밀집된 광주폴리 작품을 거점으로 광주 역사 문화자원 간 연결

고리를 찾아 이를 유·무형의 네트워크로 조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제5차 광주폴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준비 단계를 거쳤고 올해 기획 단계에 본격 돌입, 지난 4월 말 배형민 광주폴리 감독을 선정했다. 내년까지 제5차 광주폴리를 설치해 선보인다.

배형민 감독은 “광주폴리 브랜드를 국내외에 확고히 하는 것이 제5차 광주폴리의 중요한 과제다”며 “지역성과 글로벌 논리를 동시에 확보하고 기존 광주폴리, 광주비엔날레와 적극적으로 연계해 제5차 광주폴리를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양우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는 “제5차 광주폴리가 문화전당 사업과 연계돼 광주 도심 재생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 공동체에 유기적으로 녹아들면서 더욱 활성화되는 문화예술관광도시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구심적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제5차 광주폴리 기본 계획과 방향성이 발표됨에 따라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올 하반기 주제 및 장소가 결정되고 올해 말 참여 작가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나라 기자

ACC, 민주·인권·평화 일러스트&그림일기 공모 시상

엄다미·한소정씨 ‘대상’

올해 ACC 민주·인권·평화 일러스트&그림일기 공모전에서 ‘서로를 물들이는 빛(엄다미 작)’과 ‘평화가 지켜낸 꿈꾸는 미래(한소정 작)’가 일러스트와 그림일기 부문 영예의 대상을 안았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2022 ACC 민주·인권·평화 일러스트&그림일기 공모전’ 수상작 20편을 선정, 최근 ACC 회의실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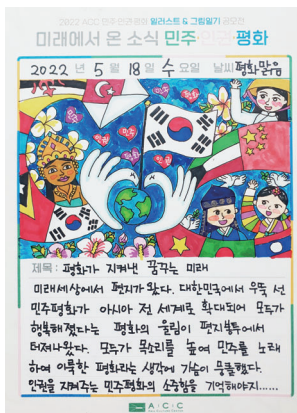
이날 시상식에서 ‘위아(WE ARE) 5·18(맹화영 작)’과 ‘평화를 원해요(송재희 작)’가 최우수상을 각각 받는 등 ACC는 일러스트와 그림일기 부문에서 각각 대상 1편, 최우수상 1편, 우수상 3편, 장려상 5편에 상장과 총상금 1,600만원을 수여했다.

ACC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접수한 159편의 출품작 중 주제 관련성과 작품성 등 평가기준에 따른 두 차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최종 확정했다.

이들 작품은 채널 ACC·미디어 월·누리소통망(SNS) 등 ACC의 각종 소통 창구를 통해 교육과 홍보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최진화 기자



일러스트부문 대상 수상작



그림일기부문 대상 수상작

전남대박물관 기증유물 특별전

전남대학교박물관이 오는 9월 23일까지 2층 기획전시실에서 ‘기증, 문화유산의 가치를 나누다’를 주제로 기증유물 특별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는 최상제 초대총장을 비롯한 교내 구성원 19명이 기증한 188점과 지역민 43명이 기증한 2,191점 가운데 문화유

산 60여 점을 선보인다.

정금희 박물관장은 “문화유산의 가치를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누기 위해 기증을 결정해준 대학구성원과 지역민들에게 깊은 감사 드린다”며 “기증자의 바람이 전시를 통해 현재뿐 아니라 미래까지 승결로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나라 기자

문화재→국가유산...지자체 전문인력 의무화

문화재청, 정책 방향·과제 발표

지난 60년간 사회 전반에서 폭넓게 쓰여 온 ‘문화재’라는 용어가 ‘국가유산’으로 바뀌는 등 문화재 관리 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재 전문 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

문화재청은 이런 내용을 포함해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 방향과 주요 과제를 27일 발표했다.

문화재청은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관련해 ▲국가유산 체제 전면 전환 ▲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과 고품격 활용 ▲문화재와 국민이 상생하는 정책 추진 ▲세계 속 우리 유산 가치 확산 등 4가지를 제시했다.

문화재청은 먼저 문화재 관리 체계와 행정의 근간을 개편해 대대적인 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지난 4월 문화재위원회와 무형문화재위원회가 발표한 결의문을 바탕으로 1962년 제정 이후 60년 동안 이어왔던 ‘문화재 보호법’ 대신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문화재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과 부합하게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개편하고 내년까지 관련법 제정 및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문화재청은 점차 사라져가는 역사문화자원을 보존하고자 비지정 문화재 보호에도 앞장선다. 2024년까지 6만여 건에 달하는 전국의 역사문화자원을 조사하고 자료 목록을 구축할 예정이다. 지정·등록문화재가 아닌 비지정문화재를 관리하는 ‘목록유산 제도’도 도입한다.

지역에서 문화재 보존·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도록 전문 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방안도 입법화한다.

현재 전국에 지정·등록된 문화재는 약 1만 4,600건으로, 이 가운데 77% 이상을 지자체에서 관리 중이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 226곳 가운데 문화재 전담부서가 설치된 곳은 16곳에 불과하다.

또 문화재 현상 변경, 매장문화재 발굴 허가 규제 등과 같이 국민의 삶이나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전수조사해 적정성을 검토하고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문화유산 보존·관리에 집중하던 기존 정책에서 산업 진흥으로 나아가려는 방향도 주목된다.

문화재청은 ‘국가유산산업진흥법’(가칭)을 제정해 관광, 교육, 디지털, 한류 콘텐츠 분야 등 문화유산과 연관된 산업을 활성화하고 관련 일자리 확대에 힘을 쏟기로 했다. /연합뉴스

www.dklmc.co.kr

도경건설 주식회사는

도로포장 전문 업체로서 끊임없는 기술개발을 통하여
특히 30여개를 등록하였고 한국도로공사 기술마켓에
9가지 기술을 등록, 특히 대한민국 최초로 결빙방지재
를 생산하는 라인을 완성하여 SOC기술마켓에도 등록
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자산을 지키는
한국형 포장기술을 완성에 나일 것입니다.



길 만드는 사람들
도경건설(주)
DOKYEONG Construction CO.,LTD

대표이사 **신현국 박정연**
Tel. 061_393_3315
전라남도 장성군 북일면 봉암로 910

결빙방지재
(Grikol)

균열보수재
(DK-Creak Sealer)

반강성주입재
(Semi-rigid Pave)

고성능개질콘크리트
(BLMC)